

# 농산물생산단지 운영 최우수

### 남원 춘향골파프리카 영농조합법인, 9년 연속 선정·수출물류비 7000만원 받아

남원 춘향골파프리카 영농조합법인(이하 법인)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해 실시한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운영실적 평가에서 9년 연속 최우수 조처로 선정되며 인센티브로 수출물류비의 8%(인 7,000만원)을 받게 되었다.

또한 전북지역 총생산량의 43.5%, 전국의 4.4%를 점유하고 있으며 운봉농협에서는 전문 APC를 설립해 공동선별과 유통 일원화로 전국적인 명성



을 얻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일본에 910톤을 수출하는 등 외국에서도 품질

과 맛을 인정받고 있는 남원시의 대표적 수출 농산물로 자리 잡고 있다. 이강조 남원시 원예산업 과장은 "최적의 생산여건과 농가들의 표준화된 고급 생산기술을 접목해 맛과 향이 뛰어난 고품질 파프리카를 생산하고 있다"며, "운봉농협 전문 APC를 중심으로 엄정한 선별과 국내외 체계적인 유통망을 확보해 농가소득 작목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 신중년 경력활용 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 순창군,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선정 5300만원 예산 확보

### 신중년 재무회계 멘토단 운영사업 참여자 5명 19일까지

순창군이 베이비부머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시기를 대비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며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군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에 선정돼 총 5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은 만 50세 이상인 신중년의 경력·전문성을 활용한 지역일자리 창출하여 지역현안을 해결함과 동시에 신중년층에 소득창출 기회를 제공

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군에서 선정된 사업은 '신중년 재무회계 멘토단 운영사업'으로 사업장 5개소, 참여자 5명을 오는 19일까지 모집하여 재무회계 멘토가 필요한 사업장에 5월부터 11월까지 전문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 사업장은 사회적 경제기업, 군출연·출자기관이다. 대상자는 공고일 전일부터 순창군에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있는 만 50세 이상으로 재무회계 관련 전문자격증 소지자 및 관련 실무경력이 최소 2년

이상 있는 사람이다. 멘토로 선정되면 1일 8시간씩 주 30시간을 근무하게 되며, 임금은 4대 보험 포함 월 130만원 정도 지급될 예정이다. 근로조건 및 신청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신청은 순창군청 경제교통과(일자리창출계)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황숙주 군수는 "신중년의 경력·전문성을 활용하여 관내 기업경영을 개선하고 신중년의 재취업으로 자신감 향상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역실정에 맞는 신중년 일자리 창출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 임실군 농촌환경위해 농촌폐비닐 수거 총력

임실군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영농활동 후 경작지에 방치하거나 불법 소각하여 농촌 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영농폐비닐, 농약빈병 등 영농폐기물을 5월까지 집중수거한다고 밝혔다.

군은 주민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읍면 주요지역에 불법 집중수거기간 안내 플래카드를 게시하고 읍면사무소와 군청에서 집중수거반을 운영한다.

개인이 농경지에서 발생한 영농폐기물을 마을단위 공동집하장이나 거점수거장소에 배출한 후 군청, 읍면사무소 또는 민간수거자에게 수거를 요청하면 된다. 수거된 영농폐기물은 남원환경공단에 반입하여 재활용되며, 계량된 양에 따라 군에서 수거장려금을 지급한다.

순석봉 환경보호과장은 "영농폐비닐 매립은 농경지를 황폐화시키고, 소각



시 미세먼지 원인이 된다"며 "영농폐기물을 한곳에 모은 후 수거해 보상금도 받고 농촌 환경도 지켜 나가자"고 말하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순창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인기

순창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지역주민을 위한 상반기 청소년상담사업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인기를 모으고 있다.

아버지들의 평화로운 소통교실인 '더브마이셀프'와 5기 청소년상담대

회이다. 지난 1일부터 22일까지 월요일 저녁 3시간동안 순창군청 회의실에서 아버지교육에 관심있는 1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다양한 변화에 따른 현대 가족문제의 평화적 의사소통을 통해 행복하고

존중어린 가족과 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하며, 참가비는 무료다.

또한 지난 4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에 진행되는 5기 청소년상담대학도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부모교육, 타로카드, 동작치료 등 다양한 내용으로 이뤄진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군이 2019년 순창군 군민의 장 2개 부문 수상자를 선정했다. 사진은 지난 9일 열린 수상후보자 공적심사 회의.

# 순창군, 군민의 장 2개 부문 수상자 선정

### 애향장 김상열씨·효열장 배요식씨

순창군이 2019년 순창군 군민의 장 2개 부문 수상자를 선정했다. 군은 지난 9일 군청 영성회의실에서 순창군 군민의 장 심사위원회를 열고 2019년 순창군 군민의 장 수상대상자로 애향장에 김상열(84)씨, 효열장에 배요식(66)씨를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상식은 오는 19일, 제57회 순창군민의 날 개막식 주무대에서 가질 예정이다. 군민의 장은 지난 2월 11일부터 3월 13일까지 7개 분야에 걸쳐 유관기관장과 사회단체장 등 각계각층에서 추천을 받은 결과, 애향장과 효열장 분야에 각각 1명씩 접수되어 선정까지 이뤄졌다. 고향을 잊지 않고 매년 썬치 소재 경로당에 100만원을 후원하고 있으며, 썬치 면민회 기금으로 5천만원 기탁, 썬치면 장학금으로 2억원을 기탁해 백은장학회 설립 계기를 만드는 등 지역사회에 모범이 되고 있다. 특히 삼양그룹 창업주인 수당 김연수 회장이 설립한 수당재단 이사로 재직하며, 순창 소재 고등

학생들이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중추적 역할을 다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 2007년 훈몽재 건립부지인 썬치면 둔전리 일대 1만 1000㎡의 부지를 순창군에 기부하여 훈몽재가 호남 최고의 유학교육기관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또한 올해도 어암관 사업부지 6,000㎡를 기부해 훈몽재 활성화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효열장의 배요식씨는 순창군 풍산면 출신으로 1978년 전남 완도에서 경찰생활을 시작하다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1990년 순창경찰서로 직장을 옮겨 2012년 정년퇴직했다. 올해 101세로 몸이 불편하신 어머니를 지극정성을 다해 모시고 있다. 한편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앞으로 한 분야에 2명 이상 접수하여 2/3이상 찬성자가 나오지 않아 수상자격자가 없을 때에는 최다득표자에 대해 재투표하여 2/3이상 찬성으로 수상자를 결정하기로 의결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 지역 매아리

## 남원소방서 가스누설경보기 가스밸브 타이머 록 설치 홍보

남원소방서는, 음식물 조리 등 부주의 화재 사전차단을 위해 각 가정에 '가스누설경보기'와 '가스밸브 타이머 록' 설치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가스누설경보기는 LPG 또는 LNG가 누출될 때, 미리 설정된 가스농도를 초과하면 경보음을 울려 거주자가 대처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가스밸브 타이머 록'은 가스 중간밸브에 부착해 설정시간(기본 30분 자동제동)이 지나거나 고온의 화재를 감지하면 자동으로 밸브가 잠기는 장치다. 소방서 관계자에 따르면 설치 시 가정에 사용하는 가스 종류(LNG/LPG)를 확인해 누설경보기 위치를 다르게 설치해야 하는 것이다. 공기보다 가벼운 천연가스(LNG)는 상승하기 때문에 천장에서 30cm아래 설치하고 있다. LPG는 공기보다 무거워 바닥에서 30cm 위에 설치하는 주의사항을 참고해야 한다. /남원=김기두 기자

## 남원시, 영농폐비닐 수거 나서

남원시가 깨끗한 농촌환경 유지와 보존을 위해 영농폐비닐 수거 사업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관계자에 의하면 방치된 영농폐비닐은 토양오염을 일으키고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불법으로 소각하다 산발로 이어지는 등 농촌 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남원시에서는 올해 1억3,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영농폐비닐 1,325톤을 수거할 계획이며, 수거단가는 1kg당 A급은 140원, B급은 120원, C급은 98원이다. 수거 의뢰시에는 영농폐비닐은 이물질을 제거해야 하고, 농약 빈용기류는 병류와 봉지류를 구분해 광치동에 있는 환경공단 남원수거사업소로 직접 운송하거나 민간수거업체에게 요청해 처리하면 된다. 왕길성 환경과장은 "영농폐기물은 방치하면 미관을 해치고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고 말했다. 며, 농업인들이 수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수거장려금도 받고 농촌 환경보전에 앞장서 주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N 치즈**

별기에 출신 지명인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